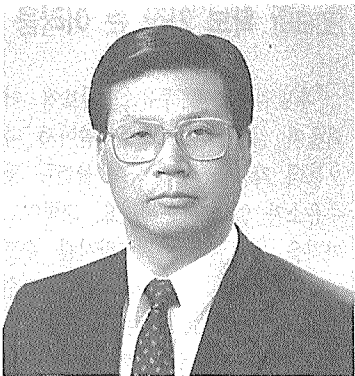


크린에너지시대 연 大山정유공장의 준공



대담 / 魚 掬 善
(이코노미스트 기자)

이 자료는 極東精油
大山공장의 준공을 맞아
張洪宣사장 (現 석유협회 회장)이
이코노미스트誌와 가진 인터뷰(11. 5)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 註>

— 大山공장 준공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日産 6만배럴로 증설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국내 최초로 크래커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을 갖췄다는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남아도는 벙커C油를 한번 더 가공해서 공해가 없는 깨끗한 경질유를 만들 수 있는 장치지요. 이제 우리회사에서는 벙커C油가 전혀 생산되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大山공장은 忠南瑞山군에 위치함으로써 「서해안시대」도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향후 對中國교역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中國원유는 하루면 가져올 수 있는데 中東에서 20일씩 걸려 가져오는 것과 비교하면 운반 비용에서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초저유황유 공급확대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국가기간산업시설의 분산에 따른 안보상 효과도 大山공장 가동의 큰 의의일 겁니다.」

엄청난 費用은 크래커시설

— 회사의 규모에 비해 엄청난 투자를 한 셈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그렇게 과감히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大山공장 완공전까지만 해도 우리회사의 원유정제능력은 日産 1만 배럴이었습니다. 湖南정유가 38만, 油公이 28만배럴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였지요. 그 상태로는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증설을 대폭할 것이냐, 아니면 몇년후에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가의 기로에서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大山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당시 장기수요예측을 해보니 경질유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과감하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크래커시설까지 갖추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크래커시설에 워낙 많은 자금이 투하되기 때문에 다른 정유사들에서는 시큰둥하게 생각할 때였지요.」

— 大山공장 설립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않았을텐데요.

「물론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크래커시설허가를 받는 일에서부터 他社의 반대에 부딪쳐 동력자원부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지요.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이었습니다. 특히 건설에 들어가는 원화자금 마련이 큰 고충이었지요. 기업공개를 못한 상태에서 증자나 회사채발행은 한도에 제약을 받아 벽에 부딪쳤고, 그때가 마침 정부에서도 인플레 우려 때문에 원화여신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던 터라 어려움은 더했습니다. 외자쪽은 차관도 활용하고 美수출입은행 등에서 어느



“대산공장은 「서해안시대」도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향후 對中國 교역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게다가 초저유황유 공급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국가기간산업시설의 분산에 따른 안보상 효과도 大山공장 가동의 큰 의의일 겁니다.”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그런대로 꾸려나갈 수 있었지요. 리스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겨우 공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크래커시설 부문에서는 油開公의 석유기금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5년동안 한우물을 파온 저력과 기술축적이 큰 도움이 됐고, 경질유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누구든지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명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 공사진행과정에서 한때 50%지분을 갖고 있는 現代와의 불편한 관계가 말썹이 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 現代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現代와는 원만한 관계

「공장증설을 하면서 現代측이 極東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반격을 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現代측과는 직·간접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인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대폭의 증자에 참여하는 등 최근에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현행 유가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의 유가는 정유회사 전체평균을 원가로 치고 여기에다 적정이윤을 보태서 세후이익이 자기자본의 10%정도 되는 전제로 가격체제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정유산업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이 가격체제입니다.

極東의 경우 大山공장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이자만 해도 연 1,2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가에 반영되는 과정은 업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정유회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제품값에 반영됐기 때문에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極東은 원가는 1,200억원 늘었지만 이중 극소부분만 반영되는 셈이지요. 과거에는 크래커시설을 하지 않고 정제시설만 했기 때문에 부담이 비슷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가체제에 변화가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현재 동자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정유업계도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후발업체로서

의 어려움도 많을텐데요.

注油所 확보 가장 큰 어려움

「후발업체로서 주유소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품은 쏟아져 나오는데 각종 규제에 묶여 물건을 팔 주유소가 없으니 문제지요. 그렇다고 가격을 내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작년의 경우 하루 2만2,000배럴의 경유가 수입됐고 금년 4~7월까지 他정유사가 경유를 수입해서 얻는 이익이 약 3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동안 우리는 경유를 수출해서 손해본 게 25억원쯤 됩니다. 국제경유가격이 비수기에는 많이 싸지기 때문이지요. 他社가 경유를 우리에게 사다면 손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볼 때도 엄청난 손해지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시설규모에 맞는 주유소가 우선 확보돼야겠지요.

또한 업계가 경쟁을 벌인다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어 하는데 현재 유가체제로는 업계경쟁이 치열

할수록 주유소측만이 중간이익을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를 가든 똑같은 기름값을 받기 때문이지요. 외국에서는 주유소마다 자기 가격을 붙여 놓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떻게든지 시정돼야 하겠지만 현재 유가체제에서는 힘들지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결국 정유업계도 자율화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재벌들의 신규참여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유업계는 몇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비용이 엄청난 장치산업이란 것이지요. 따라서 자율화를 너무 급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잉투자 내지는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회수하려면 결국 가격담합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득은 커녕 손해 돌아오게 되지요.

또한 업계가 어느정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후 자율화가 논의돼야지 그전에 자율화가 된다면 결국 약육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록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율화됐을 때 자칫하면 외국메이커에 먹힐 가능성도 있지요. 美國의 경우 그동안 국제적인 정유회사가 25개社였는데 지난 10년동안 그 수가 10개로 줄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흡수된 것이죠. 세계적인 정

유회사였던 케티오일, 아미오일, 걸프 등도 소리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자율화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우선 가격자율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출입자유화가 따르고 그 과정에서 국내정유사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면 그때 가서 신규참여의 문을 열어놓아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석유산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내 成長 餘力 아직 있다

「日本같은 경우는 벌써 꽤 사양산업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의 3배인 日本의 하루 석유류소비가 약 440만배럴 정도됩니다. 따라서 日本과 비교해 볼 때 인구를 감안, 국내석유류소비가 日本의 3분의1 수준인 약 145만배럴까지는 갈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국내 원유정제 시설은 84만배럴이니까 향후 그 정도까지는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85년이후 저유가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원유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2차 오일쇼크가 있는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원유가는

상대적으로 싼데 수요는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몇가지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어 90년대 중반 전후해서 또 한차례 에너지위기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80년초만 해도 80년대말에 가면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5달러 수준입니다. 인플레이를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싼 값이지요.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마음놓아서는 큰일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석유협회도 설립한지만 10년이 됩니다. 석유협회 회장으로서는 협회기능을 활성화시킬 구상은 없는지요.

「석유협회의 업무도 이전 국제적으로 영역을 넓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세미나에도 적극 참석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협회주관으로 많은 국제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업계가 공동으로 연구기관을 만들어 공동관심사에 대해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